

# “소중한 분께”... 현대백 ‘D·E·A·R’로 추석선물 제안

〈푸짐한 식사(Dining)·간편함(Easy)·활기(Activity)·안심(Relief)〉

사회적 거리두기에 귀향 대신 선물  
코로나19 추석 소비트렌드 반영

예약선물 판매 전년비 54% 늘어  
정육 99%, 그로서리 226% 급증  
HMR 등 조리·보관 간편제품 인기

현대백화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선물 세트 트렌드 키워드로 ‘DEAR’를 제시했다. ‘사랑하는’, ‘소중한’이란 뜻의 ‘디어(DEAR)’는 ‘푸짐하게 차린 식사(Dining)·‘간편함(Easy)·‘건강·활기(Activity)·‘안심(Relief)’의 알파벳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귀향을 자제하는 대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평소보다 정성을 가득 담아 선물하려는 추석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전 점포와 온라인몰(더현대닷컴·현대더몰, 현대식품관 투움)에서의 약 한 달 간(8월14일~9월11일)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 늘었다.



현대 화식한우 명품 난 세트



현대한우 소담 화 세트 /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은 먼저, 집에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푸짐하게 차린 식사(Dining)’을 즐기는 소비 트렌드에 주목했다. 최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외식을 줄이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정찬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다.

실제로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 기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정육(99%)과 전문 셰프들이 사용할 법한 수입 그로서리(226%), 와인·전통주 등 주류 제품(105%)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대명품한우 매 세트(85만원)’, ‘현대 화식한우

명품 난 세트(83만원)’ 등 80만원 이상의 초(超)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해와 비교해 266%나 증가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번 명절에 직접 고향이나 지인을 찾아가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선물에 담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또한, 조리·보관이 ‘간편함(Easy)’ 제품의 인기가 더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에서 먹는 식사 횟수가 늘면서, 준비가 편하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가정간편식(HMR), 반찬 선물세트의 물

량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으며, 소포장 한우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 추석보다 세 배 이상 늘려 판매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활기(Activity)’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 기간 건강기능식품 매출 신장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인 홍삼·비타민은 물론, 꿀·석류즙·콜라겐 등의 매출은 예약판매 기간 지난해보다 85%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은 건강기능식품 뿐 아니

라 자연송이·산양삼·더덕 등 고급 건강 식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20% 늘렸으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버섯·수삼 등을 가공한 ‘꽃송이버섯 분말 혼합세트(25만원)’와 ‘수삼 발효 혼합세트(16만원)’ 등도 이번엔 처음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트렌드 키워드는 ‘안심(Relief)’이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위생과 방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비대면 선물 구매는 물론 비대면 배송 등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실제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 기간 온라인을 통한 매출 신장세(전년 대비 291%)가 오프라인 매출 신장세(전년 대비 68%)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신원구 현대백화점 식품사업부장(상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맞게 되는 첫 언택트 명절인 만큼, 고객들이 안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물세트 준비에서부터 주문·배송에 이르기까지 방역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양 넉넉해진’ 편의점 도시락, 수요 26%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  
세븐일레븐, 중량 높은 상품 인기  
과거보다 중량 30% 가량 늘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무엇보다 양이 넉넉해 충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13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본격 발효된 지난 8월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의 도시락 매출은 전년 대비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식이나 식당 방문을 꺼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려는 문화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편의점 도시락을 정식으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양이 많고 풍성한 도시락이 잘 팔리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세븐일레븐에서 가장 매출이



세븐일레븐에서 도시락을 구매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높은 도시락 상위 5개 상품을 보면 평균 중량은 460g, 판매가는 4520원이었다. 가장 매출이 높은 도시락은 ‘11찬도시락’으로 중량이 510g이다.

현재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는 전체 도시락의 평균 중량이 436g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중량의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반식당에서 판매하는 비빔밥이나 덮밥, 찌개류의 1회 제공량과 동일한 수

준이다. 실제 식약처의 식품영양성분표에 따르면 해당 음식들의 1회 제공량은 약 400~500g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10여년전인 2010~2011년도만 해도 도시락 중량은 약 350~380g 정도였다”며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고객 인식이 바뀌고 풍성한 도시락을 찾는 고객 니즈가 점차 늘면서 과거보다 중량이 30%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11번가, 추석선물 8만3000여개 준비

25일까지 ‘추석특선 프로모션’

커머스포털 11번가가 코로나19 이후 첫 명절을 맞아 ‘추석 특선(특별히 엄선한 특별한 선물)’ 프로모션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JBP 등 긴밀한 협업을 이어온 브랜드, 지자체, 기관을 포함한 총 1524 곳의 셀러가 동참해 11번가 MD가 특별히 엄선한 8만3000여 개에 달하는 물량을 선보인다. 이번 추석은 명절 인사를 선물로 대체하는 ‘언택트 명절’을 보내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욱 정성들인 선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상품 수급에 집중했다.

신선식품의 경우 제주농협, 경북농협, 우체국쇼핑,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경기도 주식회사 등과 협력해 지역 농가의 농축산물을 11번가 단독 특가로



마련했다.

11번가 신선식품 서법근 팀장은 “장마, 태풍,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을 도우면서, 높아진 식탁물가에 부담 없이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행사 기간 동안 하루에 최대 20만원까지 할인되는 ‘추석특선’ 쿠폰을 매일 발급한다. 15% 할인, 10% 할인 쿠폰에 8대 카드사 7000원 할인쿠폰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CU, 무게 상관없이 ‘택배 3000원’ 서비스

최대 7000원 배송료 60% 할인

“올 추석 감사한 마음은 CU가 전해드립니다!”

CU가 다가오는 추석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라는 범국민 캠페인에 맞춰 마음을 전하는 택배 특가 이벤트를 펼친다.

CU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선물세트를 보내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역(제주도 제외)과 상품 무게에 상관없이 균일가 3000원에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의점 택배가 상품 무게와 배송 거리에 따라 최대 7000원의 배송료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60% 이

상 할인된 가격에 선물을 전할 수 있다. 항공을 이용해야 하는 제주도 지역은 상품 무게에 상관없이 정상이보다 최대 40% 저렴한 6000원의 배송료를 부과한다.

해당 이벤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CU에서 보내는 상품 무게를 측정 후 상품 종류를 선택하는 탭에서 ‘편의점 행사상품’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CU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만남 대신 선물로 인사를 대체하는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감사를 전하는 손길에 택배비 부담을 낮추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신원선 기자

## 롯데온 “추석선물 50% 혜택 받으세요”

오늘부터 ‘추석명가 본판매’ 진행  
추석연휴 전 미수령엔 결제금액 환불

롯데온(ON)이 오는 14일부터 추석 본판매를 시작한다.

롯데온은 이번 달 14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가 본판매’를 진행해 추석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14일부터 20일까지는 매일 상품군을 바뀌가며 할인 혜택

을 제공하는 ‘추석원정대’ 행사를 진행한다.

‘쿠폰원정대’ 행사는 14일부터 6일간 진행되며, 가전/디지털(14일), 의류(15일), 잡화 및 명품(16일), 리빙(17일), 스포츠(18일), 유아동(19일), 가구(20일) 순으로 각 품목별 대표 상품 10개를 선정해 판매가 대비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추석 선물 중 수요가 가장 높은 식품 상품의 경우 행



사기간내내 매일 브랜드를 바뀌가며 각 사 대표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단, ‘쿠폰원정대’의 할인 쿠폰은 매일 선착순 5천 명에 한해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